

# 흔들리는 가정, 불교에서 답 구하다



21세기 신가정 만들기  
김중서 외 지음  
도피안사  
1만2000원

“반야를 배우고 부처님의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반야를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려야 한다. 불법은 진리가기 때문에 믿고 행하는 그 사람과 가정과 사회에 밝음과 기쁨을 줄 것이다.”

흔들리는 가정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이 더 이상 개개인의 의지처가 되지 못하고 공존과 상생의 안식처가 되지 못하면서 가족이 해체되는 경향이 늘고 있다. 자못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는 어떤 답을 내놓아야 할까? 이에 대한 생각과 고민으로 지난해 분사와 도피안사가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를 주제로 10회에 걸쳐 진행한 제1차 구국구세법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여 묶은 책이 발간됐다.

<21세기 신가정 만들기>는 가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가치의 발견을 불교에서 찾도록 해준다.

이 책에서는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삶'은 바로 그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숙명임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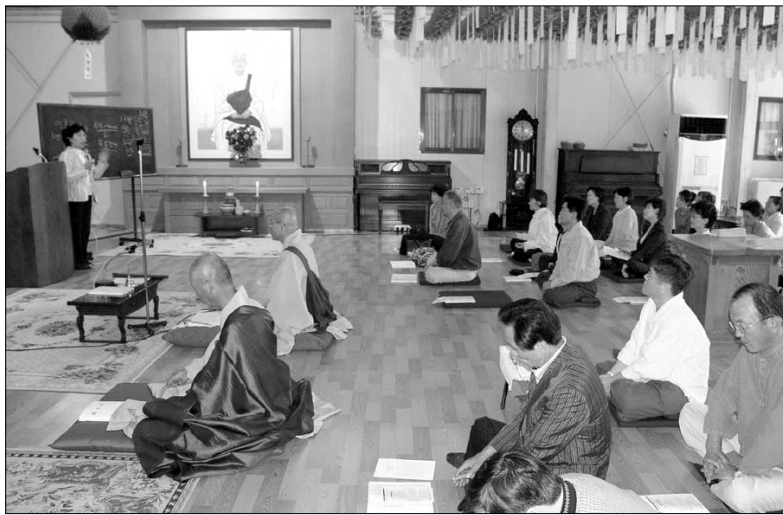
그런다음 인류가 현재 살든 좋은 문명의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을 인식시켜준다. 또 시대상황이 개인들에게 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그것은 여태껏 살아온 삶의 형태나 관습을 떠나, 모든 것을 없애는 것으로 돌리고 시작하는 것이다. 즉 인간 삶의 근본인 관계와 역할을 통해서 처음부터 다시 찾아보자는 것.

여기에서는 행복한 가정만들기의 일환으로 불교 경전에 나오는 가정에 대해 살펴본다.

책에서 중앙승가대 미산 스님은 “‘식구들이 즐거울 때 같이 즐거워하고 괴로워할 때 같이 괴로워하고 일할 때 같이 뜻을 모아 일하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가족에 대한 정의를 내린 <잡아함경>의 구절을 먼저 소개한다. 그런다음 남편과 아내의 도리 또한 명시하고 있는 <선경>의 내용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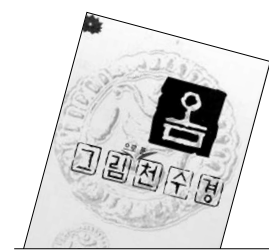
스님은 “남편은 처자식을 여여배 생각해야 한다. 처자식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집안에서 자유롭게 해주어야 한다. 아내의 친족을 생각해주어야 한다. 아내는 남편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재산을 감추어 빼돌리지 말고, 남편이 휴식을 취할 때는 편히 쉬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밖에 서울대 명예교수 김중서 박사의 ‘불자 가정의 자녀교육’, 서강대 서명원 신부의 ‘서양인이 바라보는 한국의 가정’, 이화여대 최혜경 교수의 ‘건강한 부모와 자녀 관계’ 등이 수록돼 있다.



지난해 5월 22일, 중앙건강센터장 조희금씨가 도피안사 법담에서 '오늘날 한국 가족의 모습'을 주제로 강의하는 모습.

모와 자녀 관계' 등이 수록돼 있다. 또 서울대 육선화 교수의 '모두가 행복할 권리',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본부 고성혜 위원의 '결혼과 부부관계', 방송통신대 김의숙 교수의 '불자 가정의 가정 관리', 한별장신교 최훈동 원장의 '구국구세의 무아적 의미'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움 그림으로 본 천수경  
대명 스님 지음  
대유학당 | 1만2000원

우리가 수지독송하는 법어로 되어있는 '대다라니'에 대한 풀이는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로 달리 하고 있다. 또 여러 나라를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번역을 거듭하였으며, 만들어진지가 이미 2600여년이 지났으므로 그 본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들의 진실된 행적을 살펴으로써, 그 진실된 힘에 의해 수지하는 사람이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즉 불보살들이 이룬 선과 의 힘을 빌리는 것.

항상 우리를 보호해주고 도와줄 준비가 된 여러 신들의 이름과 업적을 청송하며 배우고 존경하며 따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힘과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다라니의 영험하고 수지독송하는 이유다.

## 80여 불보살 위신력 손모양 등 그림으로

대다라니가 가장 많이 소개되고, 80여 불보살의 진실한 수행과 위신력을 표현한 <천수경>, <천수경>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풀이한 <움 그림으로 본 천수경>은 당나라 때 서역으로부터 온 고승 불공 삼장 스님의 <불설 천수천안관세음보살 광대원만무대비심 다라니경>을 저본으로 삼아 3년간 고증을 거쳐 국내 최초로 완역하고 그림으로 복원한 책이다.

이 책을 보면 관세음보살의 육자진언과 준제진언, 42개의 명호를 가진 관세음보살의 42개의 손모양과 진언을 그림과 더불어 풀이하고 있다.

또 진언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움'을 활용한 호신부를 복원하여 각기 석가여래화합부, 해원가부, 호신명부의 세 호신부를 발굴하고 있다.

이외에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들의 행적과 역할이 그림을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치 불보살을 친견하듯 다가온다.

저자인 대명 스님(미국 대명선원장)은 “3년간 불교 대학에서 강의를 한 뒤 풍부한 사례를 첨가하여 이야식으로 꾸몄다”며 “초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천수경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 yosiamun.com 추천도서

- 그냥 살라
- 마음 깨달음 그리고 반야심경
- 진흙소가 물위를 걸어간다
- 선방에서 길을 물었더니
- 큰 스님 큰 가르침
- 대신출판사, 정영섭, 1만5000원
- 민족사, 성법스님, 9500원
- 불광출판부, 무비스님, 9000원
- 고즈원, 서희동, 1만2800원
- 문예출판사, 윤정환, 1만원
- 도서주문 (02)2004-8220

## 읽기쉬운 독송용 경전시리즈 출간

불자들이 읽기 쉬운뿐 아니라 이해하기 쉬운 독송용 경전시리즈를 출간했다. 도서출판 일흥미디어가 출간한 경전시리즈 1차분은 금강경, 부모은중경, 아미타경, 천지왕묘신주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등 불자들이 가장 많이 수지독송하는 경전 5권이다.



### 깊어 읽기에 주안점 휴대용 판형 함께 내

이번에 발간된 경전시리즈는 과거의 독송용 경전들이 한문본 또는 번역본이 끊어짐이 없이 줄짜임 읽게 되어 있어 이해하는데 큰 애로를 해결했다. 이를위해 굵어 읽기에 주안점을 두고 단락 단락을 한 문본과 번역본을 간주려 읽는 이로 하여금 쉽게 읽을 수 있고 한 단락마다에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 했다.

또 현대에 맞고 가로쓰기, 가로읽기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로로 편집했으며, 묻고 대답하고 하는 회화체를 그대로 살려서 마치 소설을 읽는 느낌으로 다듬었다. 이밖에도 책 뒷면에 용어 해설편을 실어 난해한 불교 용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지속적으로 독송용 경전시리즈를 비롯해 사경용 경전도 출간할 예정인 일흥미디어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휴대하면서 독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은 판형(32절도) 함께 출간했다. (02)392-0920

## 성철 스님과의 인연 그리고 그 후

나: 스님 저 언제 죽어요?

성철 스님: 오늘 저녁 죽어라.

나: 얼마 큰 스님이 나 보고 오늘 죽으래.

엄마: 그럼 어디가서 죽어야 하는지 다시 가서 물어보아라.

나: 스님 저 어디가서 죽을까요?

성철 스님: 너저 집에 가서 죽어라.

나: 어차피 우리집에 돈도 없고 절에서 49제 지낼텐데 여기서 죽을랍니다.

성철 스님: 너저 얼마 돈(頓) 많다.

<경계의 인연이야기>는 위의 예처럼 성철 큰스님과 환경혜씨 엄마가 죽음을 놓고 선어로서 거래하는 문답 내용을 간추린 내용이다. 이 책은 23년간 매일 천 배의 절수



경계의 인연이야기  
환경혜 지음  
작가의 집 | 1만원

행으로 뇌성마비 장애를 극복한 동양화가 환경혜씨가 '선'이라는 꽃의 아름다움을 승화한 베일에 싸여있던 '선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또 거지 스님과 비룡 스님을 비롯한 무소유의 마음자리와 연계된 살림살이, 그리고 가족들의 삶 이야기를 잔잔하게 들려주고 있다.

저자인 환경혜씨는 돌이 갓 지나 뇌성마비에 걸려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다. 그녀는 23년간 만 배 백일기도를 세 번이나 성취했으며 2년전에는 15박 16일간의 히말라야 등정에도 성공했다.

올해 홍익대 미술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한씨는 현재 경남 진영에서 '작가의 집'을 운영하며 외국인 문화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 불교 입문하려는 당신에게

<법구경>은 부처님이 306번동안 광범위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설한 423개승으로 이루어져 있다.

<법구경>의 요지는 출가수행자나 재가불자를 막론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일의 근본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닦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 모든 율법과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에서 비롯된다는 사실과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밝은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말한다.

팔리어로 되어있는 <법구경>은 처음 불교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안내서이며, 동시에 오래된 불자들과 구차 수행자들에게는 조밭심을 일깨우고 끊임없는 경책을 불러 일으키는 지침서이다. 이 책을 엮은 등하 스님은 1989년 송광사로 출가하여 현재 토굴에서 안거 수행중이다.



법구경(불타의 계승) 등하 엮음  
법공량 | 9000원

## 인생에 단 한 번 만날 수 있는 경전!

삶의 지침서 <인생경>이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새롭게 창간 탄생되다!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인도하는 <인생경>! <인생경>을 접하는 날로부터 인생이 달라진다! <인생경>을 읽으면 운명이 바뀐다! 자녀들에게 사람답게 사는 길, 미래의 꿈을 심어주는 인생 지침서 <인생경>! 가정, 일터,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한 권씩 평생 지혜의 보감으로 대물림할 수 있는 책 <인생경>!

김기상 지음 / 704쪽 / 양장 / 4×6배판 변형 / 32,000원

- 동서고금 여러 성현들의 말씀 중 삶에 직결되는 말씀만 골라서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저자가 21년 동안 평범한 인생의 언어로 풀어쓴 인생의 경전!
- 하루에 한 번 아무 곳이나 펴서 읽으면 남녀노소 누구나 특정 종교나 사상,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5,457구절의 주옥같은 명언, 명구!
- 논술, 글쓰기 교육이 따로 필요 없다! 우리 겨레 고유의 베타머리 교육, 무릎 위 교육 부활 선언!

주문처 서울(본사) 02-373-8184, 010-2246-8184/중로 010-7143-8325/보문동 010-2241-3661/수색 010-5561-1071/남기차 011-270-6356 서초 010-4232-8833/목동 010-2241-6151/동작 010-5500-6646/신림 016-781-5917/서울대 011-9711-1554/낙성대 011-9998-8832 안양 011-249-3499/인천 010-2415-7500/인천 019-362-2913/부천 010-6484-4944/부천(박세기) 011-736-4948/안산 011-9784-4432 대구 010-7323-9900/인덕원 011-227-2421/의왕 010-8008-2857/부산 010-8629-1839/울산 010-4200-5723 출판 및 대리점 모집 문의 02-373-8184/010-2246-8184

☎ 도서출판 백고 전화 02-373-8184 / 팩스 02-302-4818 baikyo@dreamwiz.com / http://blog.naver.com/baikyo

##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 법요집 · 기초교리집 과도 특별찬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여류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양도 큰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 특별보급가: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 구성 : 과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걸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9,8220  
국내·해외불교서적, 교양도서 http://www.yosiamun.com